

심혜정 감독의 영화 <너를 줍다>는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다. 지수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이 버린 종량제 봉투를 뒤져서 그들의 정보를 수집한다. 쓰레기가 주는 파편적인 상태의 정보들은 지수가 이웃들의 삶의 서사를 구성하는 재료가 된다. 지수는 쓰레기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가구마다 엑셀 파일로 정리해둔다. 지수의 작업실 화이트보드에는 쓰레기들로부터 서사를 구성하는 과정이 쓰여있다. 새로 이사온 옆집 남자인 우재는 지수의 쓰레기 뒤지기 작업의 새로운 타겟이 된다. 우재의 쓰레기봉투를 뒤져 우재가 키우는 물고기, 먹는 차, 자주 가는 술집과 영화관을 알게 된 지수는 우재와 가까워지기 위해 이 정보를 이용한다. 둘은 점차 가까워지고 함께 캠핑을 떠나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우재가 집을 비운 사이 지수는 우재의 전 애인과 대면하게 되고 이후 지수는 우재를 멀리한다. 영문을 모르는 우재는 자신을 피하는 지수와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러다가 지수의 쓰레기 뒤지기 작업을 알게 된다. 우재는 크게 화를 내고 둘의 관계는 끊어진다. 몇 달 후 우재는 지수에게 다시 만나자는 뜻의 메시지를 보내고 둘이 아쿠아리움에서 재회하면서 영화는 끝난다.

#### 1. 쓰레기 뒤지기 작업

나는 <너를 줍다>에서 나타나는 지수의 '쓰레기 뒤지기 작업'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자 관계 맺기 방식으로써 갖는 의미에 주목한다. 기존의 삶이 숨길 필요 없는 것으로부터, 즉 비천하게 여겨지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간주되고 비가시화되는 것들에 대한 관심없이, 이를 들여다보고 읽어내려는 노력없이 보이는 것만으로 그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 위에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쓰레기 뒤지기는 기존의 삶과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새로운 방식이다. 쓰레기봉투는 불륜 상대와 간모텔의 영수증처럼 금기시되는 것, 여자애의 첫 생리혈처럼 은밀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간주되는 것, 우유곽, 과자봉지와 같은 빈 껍데기, 쓸모를 다한 것, 고장난 것, 애정을 못 받는 것, 더러운 것을 담고 있다. 지수가 대상의 삶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지수는 쓰레기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수에게 쓰레기 뒤지기는 삶의 방식이며 이는 곧 관계 맺는 방식이기도 하다. 왜 쓰레기를 뒤지는 짓을 했냐는 우재의 물음에 지수는 "당신을 알고 싶어서"라고 대답한다. 지수가 쓰레기를 뒤지는 것은 대상을 알기 위해서다. 대상을 알아가는 과정은 대상과의 관계 맺기를 동반하는 식으로 수행되며 지수는 대상의 삶에 서슴지 않고 개입하기도 한다.

지수에게 아는 것이란 대상의 삶의 서사를 구성해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수의 작업은 이름과 나이 성별 등 단편적인 신상정보를 알게 된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다. 지수는 쓰레기를 통해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퍼즐을 맞추듯이 파편적인 정보들을 연결해서 이웃들의 삶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수는 기저귀, 배달 이유식, 해열제 시럽으로부터 직장맘이 8개월 아기를 키우면서 수면 부족 상태에 시달리는 이야기를, 꽃게 찜뽕 봉지, 25도 빨간 소주병으로부터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혼자 사는 중년 남자의 이야기를 읽어낸다.

이러한 서사의 구성은 개입으로 이어진다. 지수는 같은 동네 사는 초등학생 여자아이인 인서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인서가 생리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수는 생리대 코너에 서 있는 인서 옆에서 생리대의 종류와 용도를 설명해준다. 또한 인서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걱정하며 할머니 댁에서 지내는 것이 어떠냐고 조언하기도 한다. 자신이 근무하는 밀키트 회사에서는 배송 시간이나 요청 메시지에서부터 고객들의 삶의 모습을 추론하여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고객의 예상 퇴근시간에 맞춰 배송 시간을 수정하고 아기를 키우는 집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메시지를 임의로 추가한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지수의 삶의 방식으로서 쓰레기 뒤지기 작업은 또한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혼자 사는 중년 남자부터 초등학생 아이, 중년 여성, 워킹맘 등 지수는 자신과 생활 환경을 공유하는 사람들 모두의 삶에 관심을 둔다. 이는 지수가 뒤지는 것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쓰레기에 주인이 어디있냐”는 지수의 외침을 떠올리면 이해가 된다. 쓰레기에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풀어서 그 쓰레기들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알아내기 전까지는 누가 버린 쓰레기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쓰레기들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알아내는 과정은 쓰레기를 만든 사람이 무엇을 버리고 싶어하는지, 숨기고 싶어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쓰레기 뒤지기 작업은 모두에게 마음을 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2. 어항 너머로 바라보기

이런 지수에게 나타난 우재는 “있는 그대로 믿자.”를 인생의 모토로 가진 사람이다. 우재는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의심 대신, 진짜가 됐든 가짜가 됐든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대로 봐주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 좋다고 말한다. 우재의 방식은 ‘어항 너머로 바라보기’다. 우재는 안시 룡핀이라는 물고기를 키우고 스노클링과 아쿠아리움을 좋아한다. 우재는 퇴근 후 집에 와서 안시를 바라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스노클링을 “개네 세계로 직접 들어가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아쿠아리움에 가면 해저터널 속에서 헤엄치는 가오리를 낚고 바라보게 된다고 말한다. 우재의 삶의 방식은 투명한 유리와 물을 통해 물고기가 보여지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과 같이 보이는 그대로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재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우재의 인생 모토를 들은 이후 지수는 회사에서도 더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쓰레기 뒤지기 작업실을 정리하는 등 우재의 믿기 방식을 가까이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우재가 여행을 간 동안 물고기 밥을 주기 위해 들린 우재의 집에서 우재의 전 애인을 마주한 이후 지수는 이전으로 돌아가 쓰레기 뒤지기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우재가 하듯이 어항 밖에서는 바라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토굴 속에 숨은 안시 룡핀을 볼 수 없고 불러낼 수도 없다. 지수의 쓰레기 뒤지기 작업이 들킨 이후 지수에 대해 알고자 우재가 찾아본 우체통에 꽂혀있던 뽀뽀한 우편물들, 지수의 인스타그램 게시물들은 우재가 알고 싶은 지수를 알려주지 않는다. 아쿠아리움에서 지수를 기다리는 마지막 장면에서 우재가 손을 갖다 대어 확실히 보여주는 유리의 존재는 투명한 물과 유리를 넘어 지켜보는 것으로는 그 대상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3. 함께 있기

그러나 <너를 줍다>가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가능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보다는 다른 데에 있는 것 같다. <너를 줍다>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특정한 삶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방식이 개인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다. 지수가 쓰레기를 뒤지게 된 것은 전 애인이 사실은 상사와 섹스를 하는 사이였다는 것을 쓰레기통에 버려진 콘돔으로부터 알았고 그 후 사람들이 겁이 나고 믿을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우재와 교류하면서 중단되었던 쓰레기 뒤지기 작업이 우재를 피하기로 결심한 이후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수에게 쓰레기 뒤지기 작업은 지속가능한 삶과 관계 맺기의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 같다. 지수는 우재의 쓰레기를 뒤진 것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며 여전히 쓰레기 뒤지기 작업을 계속하는 동력은 두려움이다. 우재에게 미안하다며 여전히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이다. 그렇다고 우재처럼 무조건 믿는 방식이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다. 우재가 의심없이 무조건 믿기를 자신의 방식으로 삼게 된 것은 엄마로부터 버려졌다는 의심이 불러온 감정과 그로 인한 상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더 행복하다는 이유로 지수를 보이는 그대로 믿은 우재는 사람들의 쓰레기를 뒤질 수밖에 없는 지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수의 측면에 충격과 상처를 겪어야 했다. 이렇듯 <너를 줍다>는 어느 한 방식의 손을 들어주는 것에 관심이 없다. "믿음은 의지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감정이잖아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요. 지수씨를 만나고 싶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우재와 그에 응한 지수가 아쿠아리움에서 재회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너를 줍다>는 그저 무엇으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함께 있기, 함께하는 시간을 쌓기, 그것을 관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최소한이자 최대한의 조건으로서 제시할 뿐이다.

그래도 나는 개인적인 욕심을 내어 지수가 아파트 한 동의 범위 안에서 활용했던 쓰레기 뒤지기 작업을 사회에 적용하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고 싶다. 쓰레기들로부터, 가장 비천한 것으로부터 삶을 구성하기, 삶이 곧 관계 맺기와 동의어가 되기, 서로에게 마구 개입하기, 쓰레기 안에 삶이 담겨있다는 보편성으로 '우리'의 범주를 끝없이 확장하기. 그곳에서는 지금의 쓸모의 논리와 소유의 논리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